논어 7편 술이 7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自行束脩以上，吾未嘗無誨焉。」

독음 · 자왈 자행속수이상 오미상무회언

쉬운 풀이(요약) · 작은 예물을 가지고 배우러 온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르쳤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自 스스로 자 / 行 다닐 행 행

束 묶을 속 속 / 脩 포 수 수 / 以 써 이 이 / 上 윗 상

吾 자기 오 오 / 未 아닐 미 미 / 嘗 맛볼 상 상 / 無 없을 무 무

誨 가르칠 회 회 / 焉 어찌 언 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